

'2위 천적' KIA, 믿음 야구로 1위 즐긴다



김도현



마운드 위기, 불붙은 타격감으로 극복 한화 상대 김도현·황동하 등 영건 출격

“의심하는 순간 의심이 현실이 된다.” KIA 타이거즈가 믿음

으로 1위를 즐긴다.

KIA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선발 운영철의 척추 피로 골절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마운드에 부상과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KIA는 1위를 지키고 있다.

비로 하루 쉬었던 KIA는 17일에도 마운드 위기를 넘고 승리를 지켰다.

최형우의 기아 홈런존을 강타한 투런포, 나성범의 시원한 만루포가 터지면서 9-3으로 앞선 5회말이 승부처였다.

선발 양현종이 선두타자 류지혁에게 3루타를 허용한 뒤 2실점을 하면서 9-5가 됐다. 투아웃에서 강민호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양현종이 이성규를 볼넷으로 내보내자 KIA 불펜이 움직였다.

자칫하면 분위기를 넘겨줄 수 있는 상황, 양현종은 결국 승리투수 요건에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이범호 감독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김대유가 김

영웅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삼성의 추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결과는 10-5 승리로 끝났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빠르게 등판해 중요한 아웃카운트를 책임진 김대유는 “큰일 났다. 빨리 막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갑자기 나가게 됐지만 그도 일단 주어진 것은 해야 하니까 집중하려고 했다. 그게 또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즌 초반 기록을 보였던 김대유는 이날까지 7월 6경기에 나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키면서 부담 많은 불펜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불펜에 쏠리는 불안의 시선, 하지만 김대유는 “의심하면 안 된다. 팬찮다”고 말한다.

김대유는 “사실 뭐 큰 것은 아니다. 다들 잘하고 있는데 부상 친구들이 나와서 마음 아파서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것이다”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걱정하면 걱정대로 된다. 그냥 걱정 안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그냥 하면 된다. ‘어쩔 건데’ 이런 생각으로 해야 한다. 주변에서 그런 걱정을 만들어내는 상황도 생길 텐데 신경 안 써야 한다. 진짜 그런 거라고 의심하는 순간, 의심이 아마 현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흔들리면 안 된다. 야구 선수는 주변에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다들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겠지만 같이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라는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1위라는 자부심으로 팀을 생각하면 가야 한다는 게 김대유의 이야기다.

KIA의 1위 수성을 위해 ‘믿음’으로 마운드에 올라야 하는 투수들, 김도현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KIA는 19일부터 대전으로 가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운영철을 대신해 선발로 낙점된 김도현이 한화 3연전 첫 경기에서 선발로 출격한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현을 먼저 내고 황동하를 일요일로 미루기로 했다. 불펜이 더 힘이 있을 때 쓰는 게 김도현을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고 선발 로테이션을 이야기했다.

주말 ‘우천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황동하의 등판을 25일 NC전으로 미루면서 양현종-알드레드-황동하로 로테이션을 맞출 생각이다.

일단 이범호 감독은 ‘60구’를 놓고 김도현의 첫 등판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범호 감독은 “60구 정도 생각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4회 정도 가고 있다면 60구가 넘어가도 이닝을 채울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빅틀 극장골' 광주FC, 코리안컵 4강 진출

연장 접전 끝 성남에 3-2 승

광주FC가 성남FC와의 연장 혈투 끝에 창단 후 처음 코리안컵(구 FA컵) 준결승에 진출했다.

광주는 지난 1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코리안컵 8강전에서 성남과 연장 접전을 벌여 3-2 승리를 거뒀다.

신창무의 멀티골로 만든 2-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까지 가는 승부를 벌인 광주는 연장 후반 15분 터진 빅틀의 헤더로 4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전반 24분 신창무가 선제골을 장식했다. 신창무는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이견희가 남긴 컷백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골대를 갈랐다.

전반 45분 신창무의 멀티골이 완성됐다. 박태준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 맞으면서 어렵게 득점에 실패했다. 하지만 신창무가 흐른 공을 잡아 재차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성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전을 2-0으로 마무리한 광주는 후반 막판 동점을 허용하면서 연장 승부를 맞았다.

후반 44분 성남 이종민이 왼쪽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추격골을 만들었다. 그리고 후반 48분 다시 한번 광주가 실점을 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박광일이 길게 올린 크로스가 후이즈 머리로 향했다. 후이즈의 헤더가 이내 광주 골대를 갈랐다. 앞서 한 차례 골 세리머니를 하고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득점에 실패했던 후이즈가 동점골을 만들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두 팀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지만 연장 전반전이 소독 없이 끝났다. 연장 후반 시간도 다 흘러가면서 승부차기가 예상되던 순간, 빅틀이 움직였다.

상대 골키퍼 유상훈의 좋은 수비에 잇달아 맞았던 광주의 공격. 코너리 상황에서 박태준이 키커로 나서 오른쪽에서 공을 띄웠다. 그리고 빅틀이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고 바운드가 된 공이 마침내 성남 골대를 뚫었다.

광주는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마무리했고, 빅틀은 결승골 주인공이 됐다.

한편 이날 진행된 코리안컵 8강 승부에서 광주와 함께 포항스틸러스, 제주유나이티드, 울산 HD



광주FC 신창무(오른쪽)가 지난 1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코리안컵 8강전에서 골을 넣은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가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포항은 FC서울을 5-1로 크게 꺾었고, 제주는 김포FC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울산은 인천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을 1-0 승리로 장식했다.

이와 함께 K리그1 4개 팀이 코리안컵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다.

준결승 대진은 8월 5일 진행되는 대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준결승은 홈앤드어웨이로 진행되

며 1차전은 8월 21일, 2차전은 8월 28일에 치러진다.

한편 코리안컵 승리를 거둔 광주는 대구 원정에서 분위기가 살아났다.

광주는 21일 오후 7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4 2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트넘의 손흥민이 1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타인캐슬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경기 하츠 오브 미들로디언(하츠, 스코틀랜드)과 경기 중 득점 기회를 놓친 후 아쉬워 하고 있다. 손흥민은 45분을 소화했고 토트넘은 5-1로 승리했다.

'원톱' SON 45분 활약... 토트넘, 승리 잡았다

프리시즌, 하츠에 5-1 승

손흥민이 새 시즌을 앞두고 치른 토트넘 홋스퍼의 첫 공개 친선경기를 무난하게 소화했다.

토트넘은 1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타인캐슬파크에서 열린 스코티시 프리미어십(1부) 소속 하츠 오브 미들로디언과의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5-1로 이겼다.

토트넘은 지난 13일 잉글랜드 리그1(3부) 소속 케임브리지 유나이티드와 연습경기를 치러 손흥민이 2골을 터뜨린 가운데 7-2로 이긴 바 있다.

이 경기는 비공개로 진행된 연습경기였으며, 토트넘이 관중 앞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치른 건 이번 하츠전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해 45분만 소화했으며,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전반 26분에는 데얀 룰루세브스키와 2대 1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라인을 뚫어낸 뒤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토트넘은 전반 39분 브레넌 존슨의 골로 1-0으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 등 선발 멤버 전원을 교체해 벤치 자원들에게 기회를 줬다.

토트넘은 후반 1분 만에 수비 실수로 하츠 로런 스샬런드에게 실점했으나 후반 10분 윙 백커의 골로 다시 앞서나갔다.

이어 후반 21분 마이키 무어, 27분 제스 스펠스, 41분 애슐리 필립스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완승했다.

토트넘은 20일 킨스파크 레인저스와 두 번째 친선경기를 치른 뒤 동아시아로 이동, 2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지난해 J리그 챔피언 빗셀 고펜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이어 한국어로와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참가한다. 3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1차전을 치르고 8월 3일 오후 8시에는 같은 곳에서 '철기둥' 김민재가 버티는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맞붙는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UBUNTU : 장원석·박일광

일시 : 2024-07-12(금) ~ 2024-08-1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